

## 여유가 있는 만큼

“여기서 대리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좋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등에는 벌써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목소리 톤과 이마의 땀은 나의 조절 범위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귀에 들어오는(내 의지로 들은 게 아니라) 질문들.

“휴~, 이 부분을 읽고 해석해보게”

버벅..버벅..(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 ● ●  
김기태  
서울대 경영학과

요즘도 내가 가끔씩 꾸는 꿈 중의 일부다.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수시 면접 시험 중이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해석을 시키거나 지문을 읽게 하는 것은 불합격의 수준이라고 하니, 이미 불합격은 확실했던 것이다. 결국엔 (당연히 그 시험에서는 불합격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정시를 통해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때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남 앞에 서서 말할 때 어려웠던 경험이 그 때뿐만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준비된 발표라면 그래도, 원고를 준비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질문이 들어오고 순발력을 발휘해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다.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훨씬 덜 부담스럽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본다. 절대적으로 말하기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때때로 글을 잘 쓴다는 소리도 들었고, 심적으로도 글을 쓰는 것이 발표를 하는 것보다 더 편했던 것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할 때처럼 자세를 갖출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스런 눈빛들을 마주할 필요도 없는 것 등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말을 할 때와 달리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쓸 수 있고, 그것을 고쳐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지우

개와 'Backspace 키'의 존재는 우리에게 순발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당장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주는 것이다. 다 쓰고 이상한 문장은 고치면 되고, 영성한 논리는 채워줄 수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글쓰기를 말하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유는 나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고쳐 쓰기'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것으로 소통을 하게 될 상대방 역시 '다시 읽기'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정리를 해가면서 읽을 수도 있다. 특히 주장하는 글쓰기나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글쓰기의 경우, 근거의 허술함이 있다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빈틈만을 정확하게 찢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순발력 있게 대답한 대신 약간의 허술함과 빈틈이 용납되는 말하기와 달리, 글쓰기는 보다 엄밀한 주장과 근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엄밀해진 상대방의 확인 작업을 넘기기 위해서는 물론 글을 쓸 때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대방이 다시 읽는 여유에도 불구하고, 그 감시망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힘을 기르는 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는 글이 최소한 나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글을 쓰고 있는 동안의 나는 아니고, 글을 쓰고 나서 며칠 지난 후의 나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 썼을 때 재미있게, 그리고 (심지어 감동할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 있다고 생각한 글이어도, 며칠 지나고 보면 빈틈이 보이고, 그다지 크게 잘 쓴 것 같지도 않은 때가 많다. 처음에 쓸 때는 쓰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고, 글로는 표현되지 않은 숨겨진 고리와 같은 문장들이 있었기에, 쓰면서 읽으면 스스로 해석하면서 읽으므로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그 고리를 스스로 버린 상태에서 읽게 되므로, 마치 남이 읽듯이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쓴 글을 상대할 수 있게 된다. 글을 쓸 때만 마음속으로 이었던 고리는 사라져서 송덩송덩 빈 논리만 보일 뿐이고, 비문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술관계가 틀리는 경우가 꽤나 많다. 틀리고 영성한 부분을 나 스스로 남이 되어서 비판하고 그 부분을 수정한다면, 남이 읽어도 비판할 부분은 적어지는 것이다. 물론 보고서 등의 기한이 주어지면 미루고 미뤄서 마감일 이틀 전이나 시작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퇴고가 꼭 필요하고 그 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면,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그것을 보여주어 상대방에게 다시 읽게 할 여유를 주기 전에, 나 스스로 다시 시간을 가지고 글을 읽어본다면, 나에게 주어진 글쓰기의

여유를 더 잘 활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써 온 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두는 것이다. 대부분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 글을 쓰는 지금은 과거보다 정리하기가 더 편해져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쓴 글과 보고서 등을 잘 정리해 둘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논술을 위해 쓴 글부터, 각종 수행평가나 편지글까지 컴퓨터에 정리해 두었는데, 글쓰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느낀다. ‘이런 생각도 해 본 적이 있구나!’라고 놀랄 때도 있고, 다시 한 번 보니 글이 좀 허술해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비슷한 주제로 글쓰기를 해야 할 때 예전에 썼던 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 이는 남이 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한 번 해본 생각이기 때문에 발전시키기도 쉽고, 더 힘 있는 글을 쓰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숙제이기 때문에 쓴 보고서이지만, 내고나면 끝인 보고서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수업에서 첨삭은 말할 것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스스로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는 그저 한 번 출력하고 마는 글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정리해두고 활용하는 것, 내 글의 가치와 쓰임새를 높이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글쓰기는 분명히 말하기보다 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그 여유와 시간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 더 엄격한 기준과 자신만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글에는 힘이 생기고,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제11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주 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자 격]**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 상]** 2009년 2학기 전공 및 교양 수업 리포트(핵심교양, 졸업논문 제외)

**[응모 기간]** 12월 중순 ~ 1월 중순(홈페이지 공지 및 전체 메일 알림)

**[심사결과 발표]** 2010년 3월 1일

**[상 금]**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각 30만원, 장려상 5명: 각 20만원

**[응모 방법]** 응모 기간 동안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의 ‘우수리포트 공모전’ 배너를 통해 접수